


 금융위원회	보 도 설 명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4.1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	담 당 자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	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			홍 진 섭 팀장 (02-3145-5692)	

**제 목 :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
받으면 되며,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(news1 4.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**

1. 기사내용

□ news1은 4.1일자 「보험설계사, 블로그 영업 막혀 ‘발 동동’ ...
금소법 첫 국민청원」 제하의 기사에서,

- ① “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
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‘광고심의’를 받아야 한다”
- ② “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
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”라고
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
-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‘협회의 심의’와 관
련한 사항은 기존의 보험업법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.
 -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‘협회’ 심의를 받지
않더라도, 상품광고 前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‘보험회사’로부터
광고내용에 대해 확인*만 받으면 됩니다.

*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

- ② 보험상품 광고의 ‘내용’에 대한 규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
험업법은 거의 차이*가 없습니다.

* “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”가 금지행위에 추가

-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도
활용 가능합니다.



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

합병관리청 콜센터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